

사회

■ 대불산단 사고로 숨진 여성 가장·불법체류 외국인 용접공의 삶

야근 밥먹듯 하며 불꽃과 싸웠는데...

한푼이라도 더... 심야까지 잔업 일수

31일 발생한 영암 대불산단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근로자들의 애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오모(여·47)씨는 어려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성의 몸으로 용접일에 나섰다. 오씨는 남편(52)과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용접일을 해왔다. 용접 자체가 위험부담은 컸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힘든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오씨는 사고 현장에서 45일가량 일했다. 오씨는 이곳에서 자동용접기로 높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었다. 오씨의 딸은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엄마 얼굴도 못 봤는데..."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오씨는 전날에도 이 현장에서 오후 9시30분까지 잔업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용접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배우기도 쉬운 편이어서 최근 10명 중 1~2명이 여성 용접공"이라며 "여성들이 섬세하고 성실해 하청업체에서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용접작업에 투입된 11명 가운데 숨진 오씨와 부상당한 중국인 여성 B(32)씨 등 2명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40)씨도 불법체류자 신세로 이곳에서 한 달가량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에 체류기간이 끝났다.

산단 내에서 일하는 용접공 대부분은 팀장을 포함해 5~20명씩 팀을 이뤄, 업체들을 옮겨다니며 일하고 있다. 이번 폭발사고에서는 일본 업체로부터 바지선 제작을 수주한 원당중공업이 협력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가 용접팀 1곳과 불꽃조립팀 1곳에 재하청을 준 것이다. 팀장들은 작업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고, 용접공들은 팀장에게 매일 일당을 받는다.

하지만 용접공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용접공들은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5~6시까지 일을 할 경우 능력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접공이 보통 오후 9시30분~10시까지 잔업을 하

고 일당의 1.5배를 받고 있다.

납품 기일이 빠듯할 경우에는 새벽까지 일하기도 한다고 주위에서는 전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용접공 김모(47)는 "중공업 업체들이 불결한 등 이유로 정식직원들을 대졸졸이면서 생겨난 기형적인 구조에서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심폐소생술 이렇게

31일 오후 광주 인성고등학교 강당에서 1·2학년생 730명이 광주 남구보건소 응급의료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경찰 과태료 미납자 계좌 압류 논란

흡피에 압류 통지 반송 47명 공고 신상 노출

광주광산경찰이 교통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개인신상정보까지 노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교통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그동안 해당 차량을 압류해왔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는 예금채권까지 압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도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한 것으로 광산경찰

은 최근 96명의 과태료 미납 차량 소유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 해당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 반송된 47명에 대해서는 압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제징수법 준용이 가능해진 사실을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

금계좌를 압류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A(51)씨는 "불과 100여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금융거래 자체를 중지시키다 보니 개인신용도가 떨어져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압류사실까지 공고하면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알려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또다른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 등 압류 운전자들의 미납금액은 대부분 120여만원 정도로

경찰이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법 적용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압류통지서가 반송된 47명의 경우 성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납금액, 압류은행 등이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제징수법 31조의 압류금지재산 규정은 12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이 같은 소액압류는 해당 금융기관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실수를 했다"며 "개인정보 노출 사항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CCTV관제센터 재입찰

항소심도 '무효' 판결... 광주시 상고 포기

광주시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사업자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정만 부장판사)는 31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회선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입찰공고, 평가 등의 절차의 일부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연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점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조만간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지만 사업 차질이나 계약 행정의 공신력 추락 등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업은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42억9300만원을 들여 기관별로 운영 중인 CCTV 1512대를 통합관리하고 532대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20일 SKT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2순위로 선정했지만 KT는 "입찰 공고 등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광태 전 시장 횡령 혐의 부인

'상품권 깡' 사건 첫 공판

재입 시절 업무추진비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 뒤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정지처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69)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31일 오전 광주지법 301회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최근 '상품권 현금화

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와 발표가 너무나 왜곡돼 발표됐다"며 "재입 8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처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바가 없으며 1억8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운영 업무추진비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했던 비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광주지법 특수부(부장판사 김석우)는 지난해 15일 박 전 시장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을 '깡'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일부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미래산단 시행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나주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30일부터 이틀간 미래산단 투자 자문회사, 시행사, 시공사, 입성후 나주시장이 실질적 사주인 W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W사가 발행한 회사채 매매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CD 모니터, 금융무선기 솔루션 제조회사인 W사는 2010년 7월 임 시장 취임 직전부터 임 시장의 부인이 대표이사사를 맡고 있다.

투자 자문회사는 지난 1월 W사가 발행한 3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해 뒷거래 의혹이 일었다.

나주시 왕곡면 일대 180여만㎡에 조성 중인 미래산단지는 민간업자가 산단을 조성한 뒤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MB형제 장로만 열면 돈 못치

이상은 10억 이상은 7억

원래 똥값만 한 형제냐?

대통령 형제라서 똥값 한대냐?

태권도장 관장이 원룸 여성 성폭행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31일 원룸에 들어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권도장 관장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원룸 2층 최모(여·25)씨의 집에 들어가 최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짓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왜 내 앞길 막아' 치량 5대 파손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차량을 연쇄적으로 부순 대학생이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교 2학년 이모(21)씨는 30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일방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MW 차량, 아반떼, 2.5t 트럭 등 차량 5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주먹으로 쳐 파손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배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차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 들어 주먹을 휘둘렀다"며 형질수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통일원리 대부흥회

“마음을 여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문선명 총재, 그는 누구인가?

지난 9월3일 93세를 일기로 성화할 때까지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실천과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이상세계 실현에 앞장서 온 문선명 총재의 삶과 업적을 아십니까?

문 총재의 성화를 계기로 그동안 궁금해 하셨을, 왜 문선명 총재를 인류의 메시아·구세주·재림주·참부모라고 일컫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영계는 존재하는가?」 등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통일원리를 만나 보십시오!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 일시: 11월 2일(19시30분), 3일(19시30분), 4일(10시30분) ※지역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주세요.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250-91 통일회관 (062) 525-6232, 525-2674 / 010-2610-8229

Table with columns for '소속교구' (Affiliated Church), '소속교회' (Affiliated Church Name),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성명' (Name), '직책' (Position). It lists various churches and their representativ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wangju, Gwangju, and Jeonnam.

통일교 한국협회

